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큰 상을 사모하라

성경: 마태복음 5장 10-16절

Tag: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0-16)

마태복음 5장~7장은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가 선별한 주옥같은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주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었을 것이다.)

산상보훈은 복에 관한 이야기부터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은 아니다. 세속적인 복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거나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역설법을 사용하여 복을 선포하고 있다.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지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게, 자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구원의 의, 복음의 의를 위한 박해를 뜻한다.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성과 직결되어 있다.

###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십지어는 거짓을 지어내어 복음을 박해하는 때의 박해를 말한다.

(2021년 2월1일 보건복지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함. 다음날 2월2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1년 1월 31일까지 종교발 감염은 8.2%.(신천지, IM 선교회, BTJ 열방선교센타 포함) 토론 상대방은 33%라 주장함. 정상적 교회의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왜냐면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하였기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속한다. -손현보목사 세계로교회, 강서구)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기 수월한 때가 있었고, 반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인데, 박해보다 한단계 더 높은 복음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 무시당하는 시대인가? 두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그것은 마귀의 논리가 세속적으로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모든 시대에 해당됨)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정권유지용으로 마녀사냥을 선택했기 때문에 박해가 심해졌다.)

그러나 전도란 이러든지 저러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다.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10:32-3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  
의식을 잘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찍이 예수를 믿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더 큰 상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사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의 복 중에서 가장 작은 복을  
받는 것이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한번 태어난 것도 신비로운데, 구원은 두 번 태어난 것이  
니 두배로 값진 인생이 된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진다.  
책임감도 달라진다. 그래서 더 귀한 삶이 되고, 더 소중한 사람이 된  
다. 땅의 시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도 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속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타  
종교인들은 쉽게 박해하기도 한다.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의 갑질도  
동일함.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자.)

어떤 사람은 현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돈에 얽매이지 말  
라! 진실한 교인들은 씹씹이가 정직해져서 현금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더 큰 상은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인생은 행복하고 의미있고 가치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분, 바로 하나님과 직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되는 것이다.(물론 가족은 그 다음이 되고, 교회는 가족의 확장 개념이 된다.)

사람은 자기에게 의미있는 자와 함께라면 불행속에서도 행복하다. 사랑하는자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상으로도 표현된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실 천국에서 받는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상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 세상에서는 겨우 세속적인 복이나 부귀영화나 세속적인 영광에 그치지만, 천국에서의 상은 영원한 상이며 영원한 신분을 뜻한다. 그러므로 ‘거지옷을 입은 왕자’처럼 행동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막10:29-30)

복음이 무시당하는 시대에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답이 13~14절에 나와 있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복음이 무시당하는 시대란, 그만큼 죄악이 버젓한 시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라는 증거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형통함과 감동이 없는 시대가 된다.

결국 세속적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 먹는 것, 입는 것, 세속적 쾌락을 쫓아간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배신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삶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솔로몬은 말하기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심지어 식구라도 내 맘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맘이 왜 그런지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소금처럼 사는 것은 도덕군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맛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저 사람은 웬일인지 실패해도 금세 살아나고, 슬픈 일을 당해도 다음 날에는 그 슬픔을 이겨내고, 배신을 당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살아나는 삶을 살면, 그는 세상에 소금이 된다. 세상에 진짜 사람 사는 맛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금처럼 사는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웬지 나보다 미련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혜롭고, 나보다 나약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강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누구

보다 부요하게 살아간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세상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등잔이 되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면 그때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이게 된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공평을 원하고, 친절을 원하고, 진실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이해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자신이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나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선한 영향력의 효과는 세상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악한 세력을 몰아낸다. 악한 자들의 기가 눌리고, 악한 행실이 비난을 받게 되고, 악한 말들과 악한 생각들이 부끄러워진다.

비로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에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모든 부끄러움을 씻고 이 시대를 위한 복음전파와 영

혼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믿는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하나님의 영향력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14절

Tag: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4:7-14)

하나님의 영향력을 초청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일하시도록 하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

흔히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을 진정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뚱한 데 힘 쓰는 것임. (예준이의 돌잔치 방해)

그런 자들을 우리는 권위적인 사람이라 부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발언을 함.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행동. 시간배정. 출연기법. 대중을 잘 다룰 줄 아는 기법 사용.

-예; 자신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을 간증. 주로 특별한 율법주의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대중을 자극. (주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음)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런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순종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조심하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켜볼 일이다. 앞 다투어 친한척 하지 말 것. (정치적 현상도 마찬가지 -유력한 자에게 줄을 대려고 함.)

-권위는 하나님의 것. 권위의 출처이시며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행동하지, 권위주의자로 행동하지 않는다. 지위를 이용해서 남 괴롭히거나, 판단하거나,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 영광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말로만 말고) 행동할 것.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당기는 가장 중요한 단초-기도하는 것.(7절)

-하나님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베풀어짐. 이것이 곧 리더십의 기초. 사랑으로 덮는 것은 일종의 덮이 아님. (8절)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방법들.(11)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기적)을 드러내라(12)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